

제주 민자유치 추진계획 ‘들쭉날쭉’

3개년 연동화계획 수립 속 1년만에 재조정 IT 등 기업 이전·풍력발전 유치 난항 등 영향 계획대비 투자실적 저조... 실효성 확보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하는 민자유치 추진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매년 3개년 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년마다 계획이 수정되는 데다 계획대비 저조한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 2018년 투자유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민자유치지원본부를 구성했음에도 회의 개최는 단 한 차례에 그치고 있어 민자유치 활성화에 대한 도정의 의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서면회의를 통해 올해 민자유치추진계획이 확정됐다. 민자유치추진계획은 제주특별법 규정(제140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연도별 투자계획과 연계한 3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짜여진다.

이에따라 올해 확정된 계획(2020~2022년)은 68건·4조966억원으로, 연도별 계획은 2020년 1조4098억원, 2021년 1조6326억원, 2022년 1조542억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확정된 계획과 비교하면 추진 목표가 크게 달라져있다. 지난해 민자유치추진계획은 79건·6조6467억원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1조8818억원, 2020년 2조6274억원, 2021년 2조1375억원이다. 세부적으로 관광분야가 50건·3조

2623억원에서 41건·1조8316억원, IT·BT 등 이전기업 및 연수원이 3건·81억원에서 1건 39억원, 풍력발전 및 전기차가 6건·1조2790억원에서 6건 8189억원 등으로 줄어들었다. 투자실적은 지난해의 경우 5745억원(계획 1조8818억원)에 그쳤다.

이와 관련 도는 일부 투자계획이 미흡한 관광개발 사업계획이 제외되고, 경기침체와 투자입지 확보 난항 속 이전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자유치계획 조정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관광개발사업이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지만 투자가 불확실한 사업계획들은 일시적으로 보류시킨 것”이라며 “올해들어 코로나19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고 풍력발전도 걸림돌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개발은 지양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관광 관점에서 제주를 바라보고 있어 해외투자유치에도 애로사항이 있는데다, 중국자본도 어느 정도 투자가 이뤄져서 향후 연차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은지기자



우뚱가사리 말리기 한창인 해녀들 12일 제주시 한경면 홍수리 해안에서 해녀들이 갓 채취한 우뚱가사리 말리기 작업을 하느라 분주한 손놀림을 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법안소위 의결 무산... 위원장 “부처간 협의 미흡”

제주4·3특별법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에 먹구름이 짙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어렵게 상정됐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재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산회 뒤 브리핑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와 정부 입장, 재정 문제 등 다양한 난관이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여러가지 미흡했다”며 의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의결 무산은 법안의 골자인 희생자 배보상 문제에 대해 재정부담을 이유로 관계부처가 신중 검토의견을 낸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정부 내에서 의결 조율이 부족,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 유족회 회장까지 의견을 들었다. 제주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자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풀어야 할 과제다. 어느 정당 어느 정파가 제주4·3에 대해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라며 “빠른 시일 내 제주 아픔 공유하고 공감하는 노력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와 기재부가 다시 협의한 뒤 추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재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안소위에 회부된 안을 우리가 심의하지 않고 전체회의로 넘기는 것은 우리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법안소위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야야간 간사 논의를 통해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국회·부미현기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최대 15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월부터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을 가장 3개월간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저소득층 참여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은 올해 폐지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도입된 것으로, 올

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참여자가 구직활동에 전념해 취업성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자는 취업성공 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를 제주 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은 2010년 도입돼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청·장년층,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1단계 진단·의욕 제고 ▷2단계 직업능력개발 ▷3단계 취업알선 등 단계별, 개인별 종합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최대 1년까지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참여자 736명 중 25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특수형태 근로자(화물차주 운전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 기사, 신용카드모집원, 대리운전원 등),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범위를 입사지원,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 이외에도 전문성 향상 활동과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직업별 보수교육, 고객확보 노력 등)을 폭넓게 인정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문체부 전국 23곳 선정

사려니숲길 삼나무숲과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서귀포 치유의 숲 등 3곳이 ‘예비 열린 관광지’로 선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지역 3곳을 포함해 올해 ‘예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9개 관광지역의 관광지 23개소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동의 제약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조성이 완료된 관광지점과 아직 조성하고 있는 관광지점을 구분하기 위해 예비 열린 관광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 23곳(71개 관광지점)이 지원한 가운데 12곳(40개 관광지점)이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현장 심사에 참여했다.

최종 선정된 예비 열린 관광지 23곳은 ▷맞춤형 현장 상담(컨설팅) ▷화장실, 편의시설, 경사로 등 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무장애 동선 조성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나눔여행 등 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한라일보 갤러리ED 개관기념
 변시지·강승희·채기선 초대전

제주, 제주 너머

2020. 4. 18 SAT - 7. 17 FRI





GalleryED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Tel. 064-750-2530

관람시간안내 평일 11:00-18:00 주말(土,日) 11: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변시지 / 강승희 / 채기선 초대전